

< 표 지 >

연구제목 :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 개발

저 자 : 박 영 숙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 영 민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우: 120-750

연 락 처 : 전화 3277-3565 / Fax 3277-2841

h.p. 019-359-5087

e-mail : parkys@mm.ewha.ac.kr

#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의 개발

박 영 숙

전 영 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본 연구는 정상담 및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필수적인 성에 대한 태도, 충동 그리고 지식에 관한 객관적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박영숙과 전영민(2001)의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용 예비 성심리검사를 기반으로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를 개발하였다. 전국 표집의 고등학생 465명을 대상으로 성지식 검사의 경우에는 문항분석을, 성태도 검사와 성충동성 검사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구성된 최종 성심리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전국표집의 고등학생 1,081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신뢰도는 전체 검사의 신뢰도가 성지식을 제외하고 .82에서 .95의 범위를 나타냈고, 하위 척도들 역시 모두 .74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요인분석 결과 성태도검사는 개방성, 자위긍정성, 인공유산수용성, 허용성, 예방성의 5개 요인, 성충동성검사는 충동성, 중독성, 자위불안성, 성행동불안성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성심리검사 점수와 실제 성행동간에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성별, 학년간에 각 검사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요어 : 청소년, 고등학생, 성심리검사, 성태도, 성충동성, 성지식

청소년기는 성 정체감 확립과 더불어 성적 충동에 대한 조절이라는 주요한 발달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 정체감 형성이나 성 충동 조절과정에서 정상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적절한 해결이 지연된다면, 정상적인 갈등은 정신장애적 상태로 전환되기에 이른다(Leite, Buoncompagno, Leite, Mergulha & Battistoni, 1995). 이에 따라 청소년기 성 충동 및 행동, 지식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체험은 발달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정상적인 성적 갈등과 성문제 해결을 돕고, 성 정체감 발달을 돕는 정상담과 성교육은 청소년기 정신건강을 위해 절실하게 요청된다. 실제 청소년들의 성적 고민과 갈등은 통계상에 나타난 정상담 비율을 볼 때 그 정도와 심각도를 짐작할 수 있다.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에서 1984년부터 1999년까지 15년간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문제와 관련된 상담이 전체 상담의 69.87%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서울YMCA, 1999).

청소년들의 성 상담을 시행하는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정상담을 위해 청소년들의 성적 갈등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심리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이명화, 1999). 또한 교육장면에서도 성심리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 왔다. 현재 국내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1998년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 이 논문은 1998년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음 (HMP-98-I-1-002).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 영 숙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120-750 / FAX: 3277-2841 / E-mail: parkys@mm.ewha.ac.kr

성교육의 실행을 위해 중·고등학생용 성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교사용 성교육 지침서를 보급하면서 학교 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교육청, 1998).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학교 성교육이 생물학적, 윤리적인 측면만을 주입식으로 전달할 뿐, 성에 관한 다양한 호기심과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규숙, 1999; 김미주, 1997).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 태도, 지식, 충동성 뿐만 아니라 성교육 요구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김성애, 2001). 국외에서도 청소년들의 성의식, 태도, 지식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성교육의 필요성과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지적되어져 왔다(Lief, Fullard & Devin, 1990; Drolet & Clark, 1994).

이러한 상황에서 성교육이나 상담 장면에서 청소년들의 성 태도, 지식, 욕구 및 성행동에 관한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성교육과 상담의 목표를 설정해주고, 효과를 검증해줄 수 있는 표준화된 성심리검사의 제작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성심리검사는 청소년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문제해결의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청소년을 위한 표준화된 성심리검사는 국내에서 제작되지 못한 채 청소년들의 성의식, 성행동 및 성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들이 이루어져 왔다(박현이, 2000; 심희정, 1999; 김정옥, 1998; 김상원, 1997; 박성정, 1997; 배남숙, 1983). 국외에서도 청소년들의 성지식, 성 태도, 성충동성 및 성행동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 개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표준화된 청소년용 성심리검사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있고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검사는 성지식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Lief와 Fullard, 그리고 Devin(1990)의 성심리검사(Sex Knowledge and Attitude Test for Adolescent; SKAT-A)가 있고, Kirby(1984)의 성지식과 태도검사(Kirby Knowledge and Attitude Scale)가 있으며, Hendrick와 Hendrick(1987)의 다차원적 성태도 검사(Multidimensional Sexual Attitude Scale)가 있다. 그러나 국내 청소년들과 외국 청소년들은 아동기부터 시작되는 교육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있어서의 차이로 인하여 성적 발달과 의식, 성지식 및 태도, 행동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청소년용 성심리검사가 표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기는 중반기의 중학생 시기와 후반기의 고등학생 시기를 거치면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성 관련 영역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예상은 박영숙과 전영민(2001)에 의해 시행된 청소년용 성심리검사의 예비연구에서 중·고등학생이 상이한 요인구조를 나타냄으로써 지지되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 수준에 적절한 성교육 및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평가 도구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평가 도구가 개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해주는 Tikoo(1996)의 연구를 보면, 고등학생집단의 성태도는 확립되어 있는데 비해, 중학생집단의 성태도는 막연하므로, 연령집단간 평가에 있어서 다른 내용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성개념과 태도가 확립되지 않은 중학생들에 비해, 고등학생들은 구체적 성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교육적 접근의 초점이 달라야 할 뿐만 아니라 평가에서도 차이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김정옥, 1998; 황은자, 1993). 뿐만 아니라 성

교육교사와 상담 전문가들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간 성행동에서의 차이점을 근거로 성심리검사 분리의 타당성을 제안하였다(김성애, 이명화, 유외숙, 정연희, 2002). 이러한 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심리검사를 제작하고, 검사의 신뢰도 및 요인구조를 통한 타당도 분석을 거쳐 표준화된 성심리검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 방법

### 연구대상

서울, 대전, 대구, 성남 등 전국의 16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1,955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들 가운데 1차로 수거된 591명의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시킨 후 465부(남 124명, 여 341명)를 대상으로 1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로 수거된 1,364명의 자료 중 부주의 문항 9쌍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6쌍 이상의 문항에 대해 불일치한 응답을 보인 283부를 제외한 총 1,081부를 대상으로 최종 타당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의 위치

### 검사 제작 절차

본 검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박영숙과 전영민(2001)의 예비검사에 기반한 것이다. 본연구의 기반이 된 예비연구과정에서는 이론적 측면보다는 청소년의 현실적인 성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청소년과 성상담 전문가와의 예비조사와 면담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이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결정되는 다차원적이고 중다특성적임을 고려하여(Thorne, 1966) 성의 인지적, 정서적 차원을 포괄하는 다면적 성심리검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성심리검사들과 성교육 문헌에 대한 고찰을 거쳐 다면적 성심리검사의 하위 검사로서 성태도 및 성충동성, 성지식척도, 성대처행동검사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전의 예비연구(박영숙, 전영민, 2001)에서 성대처행동검사의 점수와 동성애 하위척도 점수가 지나치게 편포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성대처행동검사와 동성애 하위척도는 제외시켰다. 또한 성상담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설명량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에 대해 새로운 문항들을 추가하여 본 연구에 사용될 성심리검사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 사용된 성심리검사는 성태도 검사 38문항, 성충동성 검사 39문항, 성지식 검사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롭지 않은 답변을 한 피검사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성태도 문항 중에서 4, 5, 7, 11, 12, 13, 14, 19, 21번 문항과 동일한 문항을 부주의 쌍 문항으로 제작하여, 성태도검사의 마지막 문항 다음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주요한 성행동 영역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4개 문항 추가하였다. 성행동 문항은

다른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성행동 측정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당신은 자위행위를 또래친구에 비해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까, 2. 버스나 지하철에서 고의로 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본 적이 있습니까, 3. 야한 소설(야설), 포르노, 성인용 잡지 및 만화 등을 본 적이 있습니까, 4. 김섹스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응답 방식을 보면 1번에서 4번까지의 반응 양식은 “나와는 상관없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식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 지식 검사는 1번부터 24번까지는 “예” 혹은 “아니오”로, 25번부터 34번까지는 사지선다형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 분석 방법

문항분석을 통한 문항선정을 위해 실시된 1차 분석에서는 사각회전법(delta=0)으로 주축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성 지식 검사의 경우는 ITEMAN 프로그램(Assessment Systems Corporation, 1993)을 이용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선정된 문항으로 구성된 성심리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성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최종 선정된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구하였다. 구성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태도, 성충동성 검사를 대상으로 사각회전법에 의한 주축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언타당도는 원칙적으로 기준변인에 대한 측정을 검사변인에 대한 측정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기준변인인 실제 성행동에 대한 측정을 다시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검사변인에 대한 측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실적 문제 때문에 공존타당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성행동 측정치와 각 하위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하여 예언타당도에 대한 검정을 대신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 학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각 집단별 점수차이의 유의미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요인분석을 통한 최종 문항 선정

예비검사를 대상으로 한 문항분석에서 일부 문항들이 배제되었고, 요인분석 이후에 문항 내용이 수정되거나 새로 추가된 문항들이 본검사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항들이 예비분석에 의해 도출된 요인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최종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성태도검사, 성충동성검사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연구의 결과를 근거하여 요인수를 지정한 뒤, 사각회전법(delta=0)으로 주축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선정을 위한 1차 분석에서는 예비연구 때와는 차이있게 분류된 문항이나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들을 최종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즉, 성태도검사의 경우 예방성 문항으로 분류되었던 23, 31, 38번, 허용성 요인으로 분류되었던 1, 10번이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3, 8, 17, 25, 28 번은 예비검사 때와 동일하게 분류되었지만 다른 요인에도 비슷한 부하를 보였다. 또한 6, 15, 20번은 공통변량이 낮았다. 따라서 검사의 구성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 13개 문항들을 최종 분석에서 성태도검사 문항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성충동성검사의 경우 예비연구에서 도출된 자위불안성 요인으로 분류되었던 11, 18번이 충동성 요인으로 분류되고, 1번은 공통변량이 낮았다. 또한 3, 8, 35, 20, 36, 5, 30, 37번은 예비연구와 동일하게 분류되었으나 다른 요인에도 비슷한 부하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구성개념의 명확성을 위해 위 11개 문항 역시 최종 분석에서 성충동성검사 문항에서 제외시켰다.

#### 최종 성심리검사 분석

1차 분석 결과 성태도검사에서 25개 문항, 성충동성검사 28개 문항, 성지식검사 34개 문항으로 총 87개 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들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성행동 문항 5개가 포함되었다. 2차 분석에서는 1차 분석에서 최종 선정된 문항들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 및 1차 분석에서 추출된 요인수를 지정한 뒤, 사각회전법(delta=0)으로 주축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모든 검사에서 1차 분석에서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나타냈으며,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 역시 동일하여 매우 안정된 구성타당도를 보여주었다.

성태도검사의 경우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들은 포함된 문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개방성(10대 혹은 미혼 성관계에 대한 개방적 태도), 인공유산 수용성(인공유산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허용되어야 한다는 수용적 태도), 허용성(일탈적 성행동이 특정 개인이 아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허용적 태도), 자위 긍정성(자위행위가 건강한 방식으로 성욕을 해소하는데 도움줄 수 있는 정상적 행위라는 긍정적 태도), 예방성(피임에 대한 철저한 의식과 준비성이 부족한 소극적 태도)으로 명명되었다.

-----  
표 2의 위치  
-----

표 3에서는 성태도검사를 대상으로 한 주축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요인들로 하위척도를 구성한 뒤, 각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각 요인들은 .47에서 .11의 적절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  
표 3의 위치  
-----

표 4의 성충동성검사의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충동성(성 충동성이 강하여 조절이 어렵고, 폭력적, 비정상적 성행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상태), 중독성(컴퓨터나 전화 등 매체를 통한 성 행동에 집착하고 이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상태), 자위불안성(자위행위를 통한 자신의 성욕 해소에 대한 불안이나 죄의식 등을 경험하는 상태), 성행동불안성(성행위 후 불안이나 예견적 불안이나 죄의식을 경험하는 상태)의 4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  
표 4의 위치  
-----

표 5에서는 성충동성검사를 대상으로 한 주축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요인들로 하위척도를 구성한 뒤, 각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각 요인들은 .38 이상의 적절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나, 충동성과 자위불안성 요인은 .70의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  
표 5의 위치  
-----

성지식검사의 경우 ITEMAN 프로그램(Assessment Systems Corporation, 1993)을 이용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정답율은 남·녀학생 각각 .65와 .69로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 2, 21문항은 문항-총점 상관간의 점이연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문항들은 내용적 측면에서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임신과 자위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고 있고, 청소년의 성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성지식 결핍을 나타내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문항들을 제외하지 않고 모두 최종 검사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표 6의 위치  
-----

신뢰도

성지식검사의 경우에는 문항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성태도검사 및 성충동성검사는 1차 본검사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 검사에 포함될 문항들을 선정하였고, 요인분석에 의해 추출된 요인들로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최종 검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표 7에 제시하였다.

-----  
표 7의 위치  
-----

성태도검사와 성충동성검사의 경우는 전체 검사의 신뢰도가 .82 이상을 나타냈고 하위 척도들 역시 모두 .74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태도검사의 경우 .8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하위 척도들 역시 .74에서 .89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성충동성검사의 경우 .95의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하위 척도들도 .75에서 .94의 신뢰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성지식검사의 경우는 .50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성지식검사를 제외하고 모든 전체 검사와 하위 척도의 신뢰도가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였다.

타당도

#### 하위 척도간 상관

성심리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검사들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성태도검사는 성충동성검사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임으로써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거나, 진보적 혹은 허용적일수록 성에 대한 강한 충동과 불안을 느끼며 성에 대한 지식수준도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성지식검사는 성태도 및 성충동성검사와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

#### 표 8의 위치

---

#### 성심리검사와 성행동간의 상관

성심리검사의 예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있어서 주요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4가지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과 성심리검사 사이의 상관을 구하였고,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

#### 표 9의 위치

---

분석 결과 성심리검사와 실제 성행동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위행위는 성태도검사의 자위긍정성 하위척도, 성충동성검사의 자위불안성, 충동성 하위척도와 각각 .46, .73 그리고 .55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이버섹스는 성충동성검사의 중독성 하위척도와 .27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어 성심리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성 관련 영역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성희롱, 음란물접촉과 같은 성행동은 성충동성검사와 특히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음으로써 성에 대한 욕구와 그에 따른 불안감이 고등학생들의 일탈적 성 관련 행동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성지식검사는 4개 성행동 문항과는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음란물접촉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긴 했지만 많은 피험자 수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 성별, 학년별 성심리검사 점수 차이검증

남녀별, 학년별로 성심리검사 점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별 t 검증과 학년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검사에 있어서 성별,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고등학생 시기는 신체적, 인지적 발달과 더불어 성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녀간의 차이 역시 현저히 드러나는 시기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

#### 표 10의 위치

---



표 10에 성심리검사의 학년별 점수간의 차이검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학년별로는 성충동성검사의 중독성 하위척도를 제외하고 모든 검사에서 학년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성태도검사의 허용성 하위척도와 성지식검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에서 저학년에서 고학년 순으로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나타냈다. 이것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고 허용적이며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며, 성에 대한 충동과 불안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 표 11의 위치

표 11에 제시된 성별 성심리검사 점수의 t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고등학생들은 모든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성태도검사의 인공유산 수용성 하위척도와 성지식 검사를 제외한 모든 검사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것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성적 욕구 및 불안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고 성에 대한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인공유산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지식 수준도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정상담 및 성교육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필수적인 성태도, 충동 및 지식에 관한 객관적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박영숙과 전영민(2001)의 연구에서 제작되었던 청소년용 성심리검사(예비)를 기반으로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를 구성하였다. 전국적으로 표집된 고등학생 465명을 대상으로 성지식 검사는 문항분석을, 성태도 검사와 성충동성 검사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검사에 포함될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최종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에 의해 추출된 요인들로 각 검사의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구성된 최종 성심리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전국적으로 표집된 고등학생 1,081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에서는 전체 검사의 신뢰도가 성지식을 제외하고 .82에서 .95의 범위를 나타냈고, 하위 척도들 역시 모두 .74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최종 검사의 타당도 분석에서 성태도 및 성충동성검사의 요인분석 결과는 모든 검사에서 예비검사나 1차 분검사에서도 동일한 요인구조를 나타냄으로써 안정된 구성타당도를 보여주었다. 성태도검사에서는 허용성, 예방성, 개방성, 자위긍정성, 인공유산수용성의 5개 요인, 성충동성검사에서는 충동성, 자위불안성, 중독성, 성행동불안성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에 의해 구성된 각 검사의 하위척도의 내용을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성태도검사의 하위척도를 보면, 허용성척도는 일탈적인 성행동이 특정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태도를 나타낸다. 예방성척도는 피임에 대한 철저한 의식과 준비성이 부족한 소극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개방성척도는 미혼 성관계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자위긍정성척도는 자위행위가 건강한 방식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상적 행위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인공유산 수용성 척도는 상황에 따라서는 인공유산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인공유산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성충동검사의 하위척도들을 보면, 충동성 척도는 성 충동성이 강하여 이를 조절하기 어려우며, 이와 더불어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자위불안성 척도는 자위행위에 대한 불안이나 죄의식 등을 경험하는 상태를 반영한다. 중독성척도는 컴퓨터 등 매체를 통한 성행동에 집착하고 이러한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할수록 높은 점수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성행동불안성 하위척도는 성 경험과 관련된 불안을 느끼는 경우로서 직접적인 성행위 후 경험하는 불안 뿐만 아니라 성 경험 예견 불안상태도 측정한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성지식검사의 문항들의 경우는 성교육이 요구되는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들은 생리, 임신과 출산, 인공유산, 자위행위와 성충동성, 성행위, 성폭력과 성병으로 구성되었다(박영숙 등, 출판중).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성 관련 영역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성심리검사 점수와 실제 성행동간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자위행위는 자위불안성 척도와, 음란물 접촉은 충동성 척도 및 자위불안성 척도와, 사이버섹스는 중독성 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성행동이 각각의 성행동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검사 점수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자위행위는 자위불안성과, 음란물 접촉은 충동성 및 자위불안과, 사이버섹스는 중독성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음란물 접촉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약 21% 수준에서 강한 성적 충동성을 느끼게 되고 자위행위를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Young-Ho, Kim, 2001)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음란물 접촉과 충동성, 자위불안과의 상관성이 의미있음을 지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성 관련 영역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성태도, 성충동, 성지식의 하위검사들로 구성된 성심리검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거쳐 고등학생용 표준화검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구별없이 청소년용 검사를 개발하고자 했던 원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를 분리하여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를 분리하게 된 근거는 서론에서도 밝힌 바 있는데, 본연구에서 고등학생용 검사를 개발하게 된 타당성에 관한 내용이므로, 재논의해보고자 한다. 성심리검사의 연령집단간 분리 개발의 타당성은 박영숙과 전영민(2001)에 의해 시행되었던 예비 성심리검사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중학생과 고등학생간 요인구조의 상이함을 들 수 있다. 또한 중학생용 성심리검사의 요인구조와 본연구에서의 고등학생 요인구조에서의 차이점도 부가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박영숙, 2001).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른 성 발달에서의 차이점을 지적했던 선행연구들의 결과도 검사를 분리함에 있어서 고려되었다. 그러한 선행연구로는 Tikoo(1996)의 성태도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고등학생집단은 성 태도가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중학생집단은 성태도가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고등학생과 중학생간 성태도 평가에 있어서 차별적인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들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성교육 경험에 의하면, 중학생들은 성개념과 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고등학생들은 구체적 성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성교육적 접근의 차별화와 더불어 평가에서도 차별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김정옥, 1998; 황은자, 1993). 또한 성교육 교사, 성상담가들

역시 중학생과 고등학생간 실질적인 발달상의 차이점과 행동상의 차이점을 근거로 성심리검사 분리의 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김성애, 이명화, 유외숙, 정연희, 2002). 본 연구에서는 예비연구에서의 요인분석 결과, 선행 연구 내용 및 전문가들에 의한 경험적 제안을 근거로,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를 분리하여 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격검사 등 일반적인 심리검사들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용 검사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심리검사에서 중학생용과 고등학생용을 분리하는 타당성의 검증은 추후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검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검사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본연구에서 개발된 성심리검사는 남학생용과 여학생용 검사가 분리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본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 성적 발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조건의 차이 뿐만 아니라 정상담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성별에 따른 성문제 양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유외숙, 2000; 이근후, 1999; 이명화, 1999), 성 차별적 성심리검사가 추후 개발됨으로써 보다 적절한 평가와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위험한 성 척도에 대한 응답 결과 요인분석으로 나타나는 여학생과 남학생간 요인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성별에 따른 독립적인 검사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Dehart & Birkimer, 1997). 이 연구 대상자는 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집단이긴 하였지만 대학생집단의 경우 여성운동의 결과로서 성태도, 지식, 행동에 있어서 성차가 무너지고 있다는 제안을 고려한다면(Singh, 1980),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성차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결과라고 받아들여진다. 이외에도 청소년 남학생과 여학생에 있어서 성적 위험행동에서의 행동화 차이(Luster & Small, 1994; Tubman & Windle, 1996), 성 태도의 차이가 보고되고 있다(Meston, Trapnell, & Gorzalka, 1998).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성심리검사가 독립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즉 학교장면이나 상담장면에서 보여지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충동 표출방법의 차이, 성 행동 규범의 차이, 일탈적 성행동화 방법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성별에 따라 성심리검사가 분리되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성애, 이명화, 유외숙, 정연희, 2002). 예를 들면 여학생들은 성적 충동을 표출함에 있어서 남학생들과는 다르게 자위행위나 성행위 대신 공상적 방식으로 표출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선행연구들을 보면 고등학생들의 성 개방적 태도에서의 성차(박성정, 1997; 홍강의, 신민섭, 1994), 캐나다와 인도에서 성 개방적 태도에서의 성차(Meston, Trapnell, & Gorzalka, 1998; Tikoo, 1996)가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 및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적 제안을 고려하여 본연구자들은 성별에 따른 성심리검사 분리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성별에 따른 성심리검사를 추후 보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를 개발하여 성교육과 상담장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제공하고자 했던 목표에 비추어서 볼 때 몇가지 제한점과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는 검사의 구성 내용 측면에서는 성심리검사의 하위 척도로서 정의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Kotchick, Shaffer, Forehand 및 Miller(2001)는 청소년들의 위험한 성행동 예방하는데 성지식만으로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며 정의식이 주요 조건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같이 정의식이 청소년의 위험한 성행동에 있어서 주요한 예방 효과가 있음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윤가현, 1997; St. Lawrence, Jefferson, Alleyne, & Brasfield, 1995; Baldwin, Whitely, & Baldwin, 199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의식의 구성개념을 추후 분석하여 이를 성심리검사의 하위 척도로 포함하여 검사를 보완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는 검사 기능적 측면과 관련하여 진단적 기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청소년의 발달기적 특성상 정상적인 성행동이 위험한 성행동으로 발전될 취약성을 갖고 있으므로, 정상 청소년들의 성행동이 위험한 일탈적 성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해줄 수 있는 진단적 기능을 갖춘 검사의 기능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입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고등학생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학생일수록, 성 태도가 개방화되고 성행동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와 동시에 성행동 불안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험한 성행동이나 비행으로 발전될 수 있는 성행동을 진단할 수 있는, 성심리검사의 진단 기능과 예방 기능을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사료된다. 셋째는 검사 응답의 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성심리검사에 대한 응답의 신뢰도는 어떤 심리검사의 경우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교장면에서 성심리검사가 단체로 시행될 경우 검사 반응의 신뢰도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검사 시행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검사 시행과 이를 위한 검사자의 훈련, 기타 방법이 모색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보다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온라인 성심리검사의 추후 개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은 본연구에서 개발된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는 현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의 고등학생용 표준화 성심리검사로서 상담장면에서 개개 학생들의 성태도와 충동성, 성지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줌으로써 상담 목표 설정과 효과 검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장면에서는 성교육 효과 검증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성교육장면에서 학생들이 심리검사 결과로서 얻게 될 학생 자신들의 성심리 상태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영역에서는 표준화된 평가도구의 사용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자료의 축적으로 합리적인 성교육 정책 수립의 촉진자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미주 (1997).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교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2), 137-156.
- 김상원 (1997).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경기교육논총, 6, 83-112.
- 김성애 (2001). 청소년 성교육의 활성화 방안. 2001년도 가족아카데미 성전문가 1회 세미나 자료집(미발표), 5월 31일, 서울: 가족아카데미 소강당.
- 김성애, 이명화, 유외숙, 정연희 (2002). 청소년 성심리검사에 대한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 가집단 자문. 2002년도 가족아카데미 성전문가 2회 세미나 자료집, 6월 14일, 서울: 가족아카데미, 소강당.
- 김정옥 (1998). 학교성교육의 현황 및 지도내용에 관한 연구(Ⅱ).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지, 5, 217-238.
- 박성정 (1997).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허용성, 성지식, 성역할 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숙, 전영민 (2001). 청소년 성심리검사의 신뢰도와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4), 775-793.
- 박영숙 (2001). 중학생용 성심리검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259-278.
- 박영숙, 김성애, 이근후, 이명화, 이순목, 전영민, 전현민, 조용범 (출판중). 청소년 성심리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박현이 (2000). 10대 남자청소년의 성행태에 대한 조사: "10대 임신과 남자의 무책임,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YMCA 제2회 10대 임신예방을 위한 연속토론회, 서울: YMCA.
- 배남숙 (1983). 서울시내실업계 여고생들의 성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3(1), 57-71.
- 서울특별시 교육청 (1998). 성과 행복(고등학교).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서울YMCA (1999). 성상담의 과제와 활동방향: 서울YMCA청소년 성교육상담실 개설 15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5월 13일, 서울: 서울YMCA 대강당.
- 심희정 (1999). 청소년의 성의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외숙 (2000). 스트레스, 정동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성 욕구 및 충동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가현 (1997). 청소년세대의 성문제와 성윤리. 현대사회와 성윤리.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이규숙 (1999). 고등학생의 성 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미발표 석사학위 논문,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근후 (1999). 청소년과 성: 부모교육 단기 프로그램. 서울: 집문당.
- 이명화 (1999). 한국청소년 성상담의 현황과 과제. 서울YMCA 청소년성교육상담실 개설15주년 기념세미나, 17-34, 5월 13일, 서울: 서울YMCA 대강당.
- 홍강의, 신민섭 (1994).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성 정체감 발달. 신경정신의학회, 33(6), 1378-1388.
- 황은자 (1993). 성교육 지침서 분석을 통해 본 성 이중성. 한국여성학회지, 9(1), 147-194.
- Assessment Systems Corporation (1993). *Item and Test Analysis Program: ITEMAN*

- Version 3.50, <http://www.assessment.com/ITEMAN.html>.
- Baldwin, J. I., Whitely, S., & Baldwin, J. D. (1990). Changing AIDS and fertility-related behavior: the effectiveness of AIDS education. *Journal of Sex research, 27*, 245-262.
- DeHart, D. D., & Birkimer, J. C. (1997). Trying to practice safer sex: Development of the Sexual Risks Scale. *Journal of Sex Research, 34*(1), 11-25.
- Drolet, J. C., & Clark, K. (1994). *The sexuality education challenge*. Santa Cruz: ETR Association.
- Hendrick, S., & Hendrick, C. (1987). Multidimensionality of sexual attitudes. *Journal of Sex Research, 23*, 502-526.
- Kirby, D. (1984). *Sexuality education: A handbook for the evaluation of program*. Santa Cruz: Network Publication.
- Kotchick, B. A., Shaffer, A., Forehand, R., Miller, K. S. (2001). Adolescent sexual risk behavior: A multi-system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ical Review, 21* (4), 493-519.
- Liete, R. M., Buoncompagno, E. M., Liete, A. C. Mergulhao, E. A., & Battistoni, M. M. (1995). Psychosexual characteristics of male university students in Brazil. *Adolescence, 30*, 363-380.
- Lief, H. I., Fullard, W., & Devin, S. J. (1990). A new measure of adolescent sexuality: SKAT-A.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16*, 79-91.
- Luster, T., & Small, S. A. (1994).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risk-tak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622-632.
- Metson, C. M., Trapnell, P. D., & Gorzalka, B. B. (1998).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Journal of Sex Research, 35*(2), 176-188.
- Singh, B. K. (1980). Trends in attitudes toward premarital sexu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387-393.
- St. Lawrence, J.S., Jefferson, K. W., Alleyne, E. & Brasfield, T. L. (1995). Comparison of education vs. behavioral skills training intervention in lowering sexual HIV-risk behavior of substance-dependent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154-157.
- Thorne, F. C. (1966). A factorial study of sexuality in adult mal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378-386.
- Tikoo, M. (1996). Sexual attitude and behaviors of school students(grades 6-12) in India.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4*(1), 77-84.
- Tubman, J. G., & Windle, R. C. (1996). Cumulative sexual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7*, 129-146.
- Young-Ho Kim (2001). Korean adolescents' health risk behavior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selected psychological constructs. *Society for Adolescent Medicine, 29*(4), 298-306.

# **Development of the Sexuality Inventory for High School Students**

Park, Young Sook\* Chun Young-Mi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n Drinking Culture and Alcohol Research\*\*

The Specific information on sexual attitude, impulse, behavior, and knowledge is vital to develop and evaluate sex counseling and education on adolescents. Sexuality Inventory for high school students was developed based on preliminary version of Sexuality Inventory for Adolescents by Park and Chun(2001), an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examined. Items were selected by item analysis on Sexual Knowledge Scale and factor analysis on Sexual Attitude, and Sexual Impulse Scale. Final set of items was selected through item analysis in which item difficulty and item-total correlation of the Sexual Knowledge Scale and factor structure of the Sexual Attitude and were examined on 465 high school student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final inventory were examined in the second analysis on 1,081 high school students.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s of scales ranged from .82 to .95 except for the sex knowledge scale and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s of all the subscales presented over .74. Factor analysis indicated 5 factors (liberalism, tolerance on deviant sexual behavior, acceptance of abortion, lack of prevention, positivity on masturbation) in Sexual Attitude Scale, 4 factors (sexual deviation impulse, masturbation anxiety, addictiveness, sexual behavior anxiety) in Sexual Impulse Scale. High Correlations between sexual behaviors and scores on related scales were obtain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cores of each grade and between boys and girls in most scales.

Keywords : adolescents, high school students, sexual attitude, sexual impluse, sexual knowledge, sexuality inventory,

표 1.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별 분포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남	111	122	166	399
여	348	139	195	682
합계	459	261	361	1081

K C I



표 2. 고등학생용 성태도 검사의 최종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공통변량
	개방성	인공유산 수용성	허용성	자위 긍정성	예방성	
11. 순결은 지켜야 한다	.84	.10	.04	.29	.31	.72
7.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혼할 때까지는 성관계를 해서는 안된다	.83	.18	.16	.34	.29	.71
26. 결혼전 성관계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79	.08	.06	.38	.26	.65
2.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의 순결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72	.11	.10	.22	.24	.52
22. 순결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69	.14	.14	.30	.39	.51
33. 10대들의 성관계는 좋지 않다	.66	-.03	.19	.31	.49	.52
13.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더라도 낙태해서는 안된다	.14	.81	-.10	-.0	-.19	.68
5. 낙태는 어떠한 이유든 허용되어선 안된다	.23	.70	-.01	.10	.02	.51
30. 책임지지 못할 생명이 잉태되었다면 낙태를 하겠다	.00	.67	-.00	-.00	-.20	.46
36. 상황에 따라 낙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08	.62	.07	.05	.05	.41
37. 남성들은 마음속으로는 난폭한 성관계를 원한다	.03	.12	.81	-.07	.01	.71
34. 남성들은 강제적인 성행위를 할 때 성적으로 흥분한다	.00	.05	.67	-.05	-.00	.48
32. 여성들은 마음속으로는 난폭한 성관계를 원한다	.22	-.17	.62	.15	.32	.45
21. 상대방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싶어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13	-.12	.50	.20	.39	.35
19. 누구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20	-.04	.47	.24	.34	.30
4. 자위행위는 불결한 행동이다	.31	.05	-.00	.89	.12	.80
24. 자위로 성욕을 해소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33	.09	.03	.62	.15	.40
14. 부모는 자녀들의 자위를 막아서는 안된다	.14	-.00	.04	.52	.13	.27
29. 상대가 피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임을 하도록 설득하겠다	.38	-.11	.02	.17	.68	.51
27. 나는 성관계를 할 경우 반드시 피임을 하겠다	.48	-.07	.10	.19	.68	.53
35. 임신이 되더라도 사후 피임을 하면 되므로 반드시 피임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	.32	.00	.20	.21	.58	.36
12. 피임은 성행위의 쾌감을 방해하므로 하지 않겠다	.11	-.07	.17	.12	.57	.34
고유가	5.01	2.32	1.84	1.17	.95	
설명변량 (%) 51.41	22.79	10.57	8.39	5.31	4.33	

표 3. 고등학생용 성태도 검사의 하위요인간 상관

	요인 1 개방성	요인 2 인공유산 수용성	요인 3 허용성	요인 4 자위 긍정성	요인 5 예방성
요인 1 개방성	1.00				
요인 2 인공유산 수용성	.27**	1.00			
요인 3 허용성	.33**	.14**	1.00		
요인 4 자위 긍정성	.44**	.16**	.32**	1.00	
요인 5 예방성	.47**	.11**	.41**	.35**	1.00

\*\*  $p < .01$

K C I

표 4. 고등학생용 성충동성 검사의 최종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충동성	요인 2 증독성	요인 3 자위 불안성	요인 4 성행동 불안성	공통변량
31. 몰래 상대방의 나체를 훑쳐보고 싶다.	.84	.30	-.64	.29	.72
21. 나는 이성의 몸을 몰래 만져보고 싶을 때가 있다	.83	.28	-.62	.28	.70
14. 음란물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해보고 싶을 때가 있다.	.83	.28	-.59	.42	.70
26. 영화나 비디오에서 강간하는 장면을 보면 따라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79	.37	-.62	.36	.64
12. 섹스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오른다.	.78	.30	-.55	.30	.60
4. 이성의 알몸을 보고 싶을 때가 있다	.77	.23	-.58	.29	.59
15.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가 있다.	.74	.30	-.55	.50	.60
17. 강계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할 때가 있다	.73	.24	-.49	.32	.53
10. 성적인 생각이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다.	.72	.34	-.54	.29	.53
6. 다른 사람이 성관계 하는 것을 보고 싶을 때가 있다.	.72	.27	-.46	.33	.53
19.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성의 몸을 더듬고 싶을 때가 있다	.72	.27	-.53	.23	.52
29. 컴섹스를 줄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24	.78	-.32	.29	.61
22. 내가 컴섹스를 한다는 사실을 친한 친구들에게 숨기고 있다.	.29	.76	-.35	.28	.58
32. 나는 컴섹스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21	.76	-.27	.30	.58
38. 컴섹스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27	.75	-.35	.32	.57
13. 컴섹스를 그만 두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다.	.32	.65	-.31	.22	.44
7. 폰섹스를 그만두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다	.29	.58	-.28	.28	.34
28. 자위를 많이 하면 건강이 나빠 질까봐 걱정이다	.62	.38	-.87	.31	.76
25. 자위를 자주 하면 정력이 약해 질까봐 걱정이다	.64	.38	-.86	.36	.74
34. 나는 자위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62	.40	-.86	.28	.74
39. 자위를 많이 하면 성인이 되어 성기능 장애가 생길까봐 불안하다.	.60	.36	-.85	.33	.73
9. 자위는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	.66	.39	-.83	.29	.70
23. 나는 자위를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56	.39	-.82	.36	.68
2. 자위 횟수를 줄이고 싶다.	.58	.29	-.82	.29	.67
24. 성관계를 거절하면 내 이성친구가 떠날까봐 두렵다.	.38	.32	-.36	.70	.51
16. 나는 성경험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35	.27	-.32	.68	.47
33. 성교를 제안하면 내 이성친구가 떠날까봐 두렵다.	.48	.30	-.49	.62	.48
27. 성관계 후 내가 임신이 되었을까봐 불안해 한 적이 있다.	.16	.27	-.13	.59	.36
고유가	11.69	2.43	1.44	1.06	
설명변량 (%)	59.36	41.76	8.67	5.13	3.80

표 5. 고등학생용 성충등성 검사의 하위요인간 상관

	요인 1 충등성	요인 2 중독성	요인 3 자위 불안성	요인 4 성행동 불안성
요인 1 충등성	1.00			
요인 2 중독성	.38**	1.00		
요인 3 자위 불안성	.70**	.43**	1.00	
요인 4 성행동 불안성	.49**	.39**	.46**	1.00

\*\*  $p < .01$

K C I

표 6. 고등학생용 성지식 검사에 대한 문항분석 결과

문항	남		여	
	정답율	문항 총점간 점이연 상관	정답율	문항 총점간 점이연 상관
1. 임신과 성병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은 콘돔이다.	.80	.18	.54	.06
2. 여성의 생리주기를 이용한 자연 피임법은 80%이상의 효과가 있다.	.33	.05	.37	.10
3. 먹는 피임약은 성교하기 직전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	.54	.17	.59	.28
4. 피임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다.	.82	.36	.85	.37
5. 여성의 난소에서는 대체로 한 달에 한 개의 난자가 나오게 된다.	.77	.36	.74	.28
6. 처녀막은 심한 운동으로 손상될 수 있다.	.72	.31	.79	.28
7. 성적 자극에 대해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더 빨리 흥분한다.	.60	.28	.74	.30
8. 동물의 발정기처럼 사람도 성욕을 조절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	.63	.19	.57	.24
9. 자위행위를 하면 경색이 고갈된다.	.78	.25	.81	.49
10. 여자가 끝까지 저항한다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40	.10	.57	.27
11. 테이트 상대와 성행위를 할 때는 강제성이 있더라도 성폭력이라 할 수 없다.	.74	.30	.81	.35
12. 남성의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발기가 안될 수도 있다 .	.63	.32	.56	.23
13. 술을 많이 마실수록 성적인 능력은 높아진다.	.74	.31	.72	.42
14. 여성이 성교시 오르가즘을 느꼈을 때만 임신이 가능하다.	.88	.46	.89	.56
15. 여성들은 자위나 성적인 공상을 통해서도 오르가즘을 느낀다.	.58	.30	.34	.23
16. 질외사정은 안전한 피임방법이다.	.50	.12	.62	.28
17. 출산 후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임신이 되지 않는다.	.65	.25	.55	.24
18. 본드나 부탄, 환각제 같은 약물은 충동적 성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70	.35	.66	.24
19. 콘돔을 사용하면 완전한 피임이 보장된다.	.70	.20	.83	.42
20. 일반적으로 자위행위는 이성과의 성행위를 방해한다.	.77	.28	.73	.42
21. 임신 초기에 이노게나 설사약을 복용하면 낙태가 된다	.63	.07	.54	.27
22. 여성의 흡연과 음주는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	.90	.27	.92	.45
23.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키가 크지 않는다.	.75	.25	.74	.46
24. 남성에게 성적 관심이 가장 높은 시기는 보통 10대 후반이다.	.73	.26	.66	.19
25. 월경 주기가 규칙적인 여성의 경우 배란일은 언제일까요? ( ) ① 월경이 시작되기 14일 전    ② 월경이 시작되기 7일 전 ③ 월경이 끝난 날로부터 7일 후    ④ 월경이 끝난 날로부터14 일 후	.30	.10	.55	.22
26. 다음중 임신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부는? ( ) ① 부인의 배란 예정일 전후로 3일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 ② 성교 후에 피임약을 먹는다. ③ 임신이 가능한 날은 콘돔을 사용한다 . ④ 부인이 피임약을 지속적으로 먹는다.	.52	.29	.53	.31
27. 보통 정자가 생존하여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은? ( ) ① 1 - 2 일간    ② 3 - 4 일간    ③ 5 - 6일간    ④ 일주일 이상	.33	.14	.52	.17
28. 출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b>맞지 않는</b> 것은? ( ) ① 분만이 시작되면 산모는 통증을 느끼게 된다. ② 자연분만이 가능해도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것이 산모의 건강에 더 좋다 . ③ 태아가 태어난 후 태반, 탯줄이 모두 나와야 분만이 완결된 것이다. ④ 분만 후에는 산후 출혈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74	.45	.89	.43
29. 다음 중 낙태에 대한 설명으로 <b>맞지 않는</b> 것은? ( ) ① 낙태를 하면 임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② 낙태수술의 후유증으로 잦은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③ 낙태는 출산하기 전에는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④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에는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다 .	.62	.34	.85	.39
30. 여자의 월경에 대한 내용 중 <b>맞지 않는</b> 것은? ( ) ① 초경 후 얼마동안은 불규칙적일 수 있다.    ② 모든 여성은 28일주기로 월경을 한다. ③ 임신 중에는 월경을 하지 않는다.    ④ 월경의 양과 색깔은 개인에 따라 다를수 있다.	.45	.33	.76	.33
31. 다음 중 에이즈에 대한 설명 중 <b>맞지 않는</b> 것은? ( ) ① 에이즈는 동성연애자만 걸리는 병이다.    ② 에이즈도 성병의 일종으로 전염병이다 ③ 에이즈환자의 혈액을 수혈하면 전염된다.    ④ 혈액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알아 볼 수가 있다 .	.73	.34	.80	.35
32. 다음 중 에이즈 감염의 원인으로 <b>맞는</b> 것은? ( ) ① 에이즈 환자가 이용한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사용했을 때 ② 에이즈 환자가 마시던 컵이나 물건을 사용했을 때 ③ 에이즈 환자와 가벼운 스킨십을 했을 때 ④ 에이즈 환자가 헌혈한 혈액을 수혈 받았을 때	.80	.42	.83	.34
33. 다음 중 성병에 대한 설명 중 <b>맞지 않는</b> 것은? ( ) ① 성병 보건자와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염된다. ②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성병에 걸린다. ③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병에 걸렸음을 나타낸다 . ④ 성병을 오래 심하게 앓으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수도 있다.	.67	.38	.63	.40
34. 다음중 성폭력 피해자가 해야할 조치가 <b>인년</b> 것은? ( ) ① 72시간 이내에 보건소나 산부인과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법적 처리를 위해 증거물을 잘 보존해야 한다 . ③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아는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한다. ④ 가해자의 보복을 막기 위해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	.75	.40	.87	.39
평균	.65	.27	.69	.32

표 7.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의 내적 합치도

	성태도 검사					성충동성 검사					성지식 검사	
	개방성	인공유산 수용성	허용성	자위 긍정성	예방성	전체 검사	충동성	중독성	자위 불안성	성행동 불안성		전체 검사
내적 합치도	.89	.80	.74	.74	.77	.82	.94	.87	.94	.75	.95	.50

KCSI

표 8.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의 하위검사간 상관

	성태도 검사	성충동성 검사	성지식 검사
성태도 검사	1.00		
성충동성 검사	.61**	1.00	
성지식 검사	.09**	-.05	1.00

\*\*  $p < .01$

KCSI

표 9.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와 성행동간 상관

성행동	성태도 검사						성충동성 검사					성지식 검사
	개방성	인공유 산 수용성	허용성	자위 긍정성	예방성	전체 척도	충동성	중독성	자위 불안성	성행동 불안성	전체 척도	
자위행위	.35**	.07*	.28**	.46**	.33**	.43**	.55**	.18**	.73**	.33**	.64**	.04
성희롱	.21**	.03	.20**	.22**	.21**	.25**	.41**	.11**	.38**	.28**	.42**	-.02
음란물접촉	.41**	.15**	.26**	.39**	.32**	.46**	.54**	.11**	.48**	.26**	.52**	.09**
사이버섹스	.11**	.05	.15**	.11**	.14**	.17**	.20**	.27**	.20**	.18**	.24**	-.07*

\*\*  $p < .01$ , \*  $p < .05$





표 10. 성심리검사 점수의 학년별 일원변량분석

		1학년	2학년	3학년	F	Scheffe 사후검증
	허용성	7.14( 4.87)	7.08( 4.91)	7.97( 4.96)	3.602 *	
성 태 도	자위긍정성	7.06( 3.33)	8.15( 3.54)	9.17( 3.24)	38.461 ***	1<2<3
	인공유산긍정성	10.05( 4.75)	11.45( 4.56)	10.69( 4.71)	7.473 **	1<2
검 사	개방성	12.05( 5.32)	13.89( 5.77)	15.68( 5.83)	38.193 ***	1<2<3
	예방성	5.79( 3.89)	6.79( 4.08)	7.21( 4.03)	13.682 ***	1<2,3
	전체검사	41.75(15.18)	46.99(16.50)	50.11(16.30)	32.603 ***	1<2<3
성 충 동 성	충동성	14.30( 9.81)	17.38(11.56)	18.60(11.89)	16.646 ***	1<2,3
	중독성	1.07( 3.05)	0.97( 2.85)	1.31( 2.95)	1.109	
	자위불안성	2.94( 5.88)	6.20( 8.44)	6.61( 8.38)	29.466 ***	1<2,3
검 사	성행동불안성	1.67( 3.06)	2.20( 3.33)	3.25( 3.82)	22.258 ***	1,2<3
	전체검사	19.98(18.15)	26.67(21.78)	29.77(22.13)	24.478 ***	1<2,3
성지식 검사		17.56( 4.64)	18.10( 4.20)	18.21( 3.68)	2.772	

주.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집단간 자유도=2, 집단내 자유도=1078임.

\*\*\*  $p < .001$ , \*\*  $p < .01$ , \*  $p < .05$



표 11. 고등학생용 성심리검사 점수의 성별 집단간 차이검증

		남	여	t
성 태 도	허용성	8.86( 5.04)	6.55( 4.65)	7.618 ***
	자위긍정성	9.65( 3.18)	7.06( 3.28)	12.452 ***
	인공유산수용성	10.02( 4.84)	10.94( 4.62)	-3.107 **
검 사	개방성	16.07( 5.75)	12.18( 5.39)	11.158 ***
	예방성	8.17( 4.25)	5.53( 3.55)	10.948 ***
	전체검사	52.44(17.09)	41.93(14.46)	10.315 **
성 충 동 성	충동성	24.91(11.76)	11.58( 7.08)	23.238 ***
	증독성	1.93( 4.04)	.66( 1.96)	6.928 ***
	자위불안성	11.13( 8.90)	1.35( 3.28)	25.866 ***
검 사	성행동불안성	3.41( 4.01)	1.69( 2.91)	8.126 ***
	전체검사	41.32(22.64)	15.28(11.92)	24.734 ***
	성지식 검사	16.90( 4.07)	18.50( 4.23)	-6.092 ***

주.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집단간 자유도=1, 집단내 자유도=1079임.

\*\*\*  $p < .001$ , \*\*  $p < .01$

